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중 경제관계

2017년 4월 4일

LG경제연구원

목차

Ⅰ. 사드 보복의 배경

Ⅱ. 한중 경제관계와 그 영향

Ⅲ. 향후 전망

사드 관련 양국 시각 차이 큰 편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이 한국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은, 사드의 전략적 의미와 파장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

	한국 정부의 시각	중국 정부의 시각
사드 배치 필요성	•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목적의 무기 체계 • 한국의 주권적 결정	• 북한의 한국 수도권까지 사거리가 60km 정도이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 효과가 제한적 • 사드 배치는 오히려 북한의 핵 타격 능력 고도화를 유인하는 결과 초래할 것
사드 군사 작전 역량	• X밴드 레이더(AN/TPY-2)[1]는 북한 미사일 탐지용이며, 사드 요격미사일도 중국 ICBM에 미치지 못함. • 중국 군 동향은 이미 주일 미군에 배치된 레이더, 첩보위성, 이지스함 등으로 감시하고 있음.	• 조기경보용으로 전환 시 중국 동부지역 군 동향 상시 감시 가능 • 중국 전략 미사일의 '기만탄 전개(decoy deployment)' 정보 사전획득 가능… 대미 핵·미사일 전력 약화 우려 [2]
사드 배치 불가역성	• 북핵 위협이 약화되지 않는 한 철회 불가하나 중국의 중재자적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음.	• 미국의 전략적 의사가 관철된 만큼 한국의 배치 반대여론을 고조시키거나,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가역적인 상황

1) 사드체계에 포함된 X밴드 레이더 AN/TPY-2는 탐지거리 600Km인 사격통제용(Terminal Mode)과 탐지거리 최대 2000Km인 조기경보용(Forward-Based Mode)으로 구분. 두 모드의 하드웨어는 같아 8시간 내 조기경보 전환이 가능해 美 본토 방어용 지대공 요격체계에 연동

2) 미 국가과학아카데미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정지궤도 첩보위성, 공군의 조기경보기(Pave Paws) 등은 기만 물체를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어 X밴드 레이더 통한 식별능력 보완이 MD 체계 효율화에 중요

사드와 기타 아시아 안보이슈 비교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 군사력의 동아시아 확장에 첫 걸림돌이 되는 만큼 매우 예민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슈별 중국의 우려

- **사드 레이더 배치**
  - 미군의 직접 감시 가능
  - 핵 반격 시 옵션 약화
- **북한 핵개발**
  - 일본 핵무장 촉발
  - 미국의 선제타격…전쟁

→ **연동 사안**

미군개입
명분 大
비용 小

- **남사군도 군기지 건설**
  - 명분 잃었지만 실효지배
  - 미국은 3자 입장
- **조어도 영유권 분쟁**
  - 일본 실효지배 중
  - 민족감정 이슈
- **대만 독립 움직임**
  - 미국, '두 개 중국' 천명
  - 태평도 미군주둔 가능성

→ **개별 사안**

미군개입
명분 弱
비용 大

중국의 현재 대응

- 전임 행정부 시절의 사안별 해결 노선 포기…. 트럼프 행정부와 포괄적 해결 추진
  - 대내 정치 측면에서 경제실리 양보, 군사실리 얻는 방향이 유리
  - 사드와 북핵 포괄해법 선호
- 당장 사드 배치의 불이익을 경각시키되 반중 정서 역풍을 차단하는 선의 여론전

사드 강행 시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정 불가피

사드 배치가 불가역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북아의 현상 유지'를 추구해온 기존 한반도 및 북핵 정책 수정에 이어, 사드 보복의 범위와 기한도 재조정 필요

중국의 기존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

① 한반도 안정(현상 유지)
- 경제 강국 건설의 전제
- 미군의 개입여지 봉쇄
- 대규모 북한난민 우려
- 한반도 통일의 불확실성 사전에 차단

② 한반도 비핵화
- 일본의 핵보유, 한국의 미 전술핵 배치 도미노 우려

한반도 안정 유지하는 선에서 비핵화 관련 조치

사드 배치로 ①, ② 모두 동요

사드 레이더 가동 임박… 중국의 단계별 옵션

先 **사드 보류 및 철수**

→ 한반도 안정유지 下 대북 압박강화
- 다자 대화해결 with 대북 경제제재
- 한국 사드 보복 유지

불가역 판단 시

後 **대미 재 균형 시도**

→ 한반도 안정유지 + 북한체제 지원
- 사드 무력화 군 전력 강화
- 러시아와 공동대응
-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유지
- 한국 동반자관계 내부적으로 격하

→ 북한 Regime Change 시도
- 사드 배치 원인 제거
- 미국과 사전협의 필수적
- 불확실성이 훨씬 커 선택 가능성 미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중국의 비관세조치 시행 건수가 급등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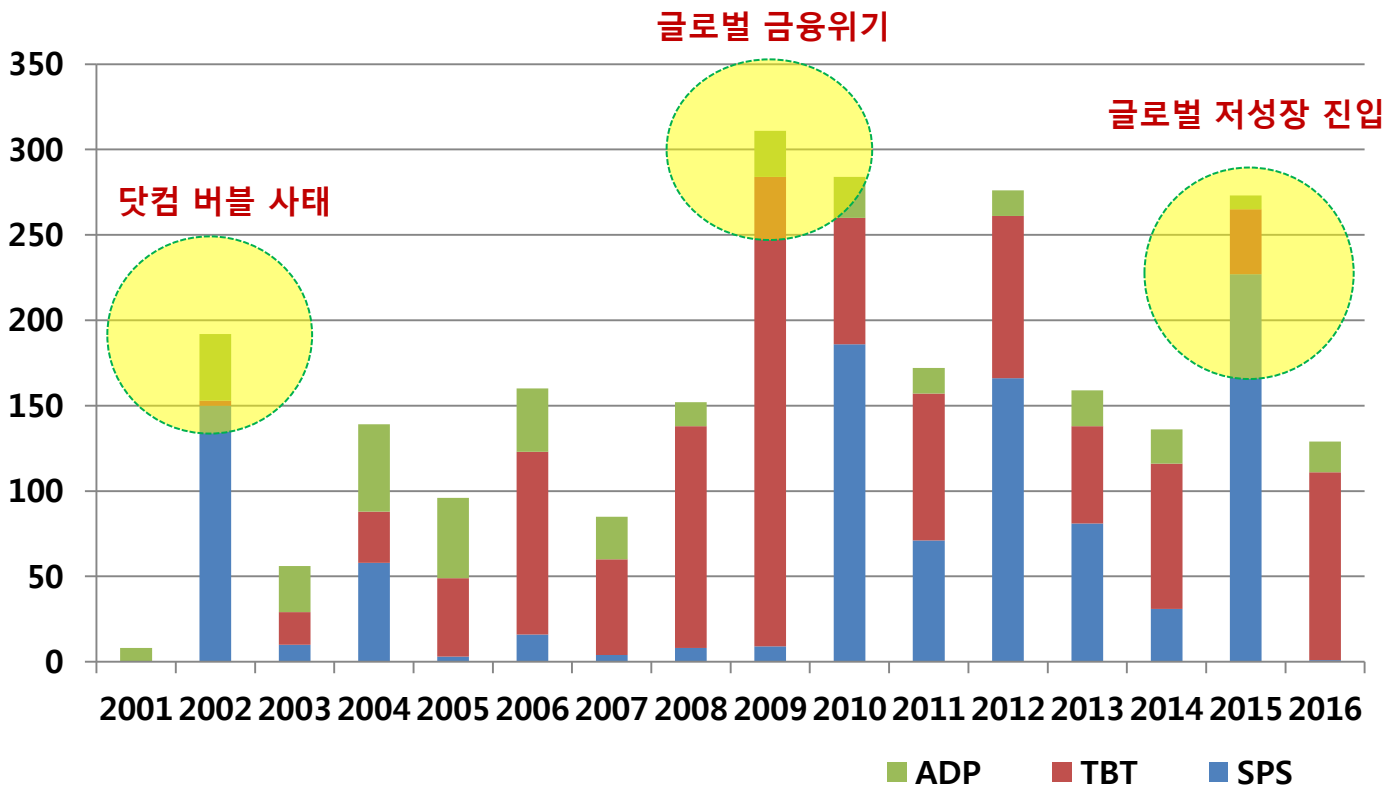
각국의 주요 비관세조치 추이 비교

	2000년 7월 ~ 2008년 6월				2008년 7월 ~ 2016년 6월			
	전체	SPS	TBT	ADP	전체	SPS	TBT	ADP
중국	**814**	**249**	**386**	**168**	**1,662**	**771**	**782**	**83**
홍콩	**151**	17	33	0	**133**	13	19	0
인도	**498**	49	34	408	**497**	54	21	333
대만	**243**	139	62	11	**449**	223	175	23
베트남	**6**	4	2	0	**158**	66	82	6
멕시코	**313**	64	174	74	**303**	72	180	46
일본	**539**	164	317	6	**568**	214	265	8
호주	**525**	114	73	86	**436**	144	39	114
EU	**827**	255	225	253	**1,039**	229	606	136
싱가포르	**48**	24	4		**49**	19	24	0
미국	**2,666**	1,631	437	294	**2,229**	934	827	212

자료: WTO/I-TIP

중국경제 특성 상 경기 위기, 혹은 위축 국면에서 비관세조치가 빠르게 증가

중국의 주요 비관세조치 추이



* ADP: 반덤핑, TBT: 기술장벽, SPS: 위생검역 / 자료: WTO/I-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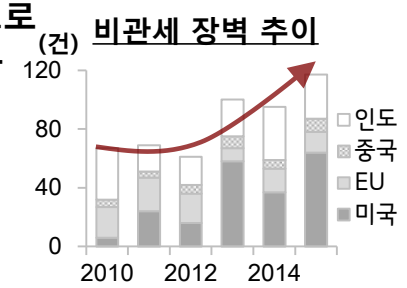
<참고>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부상

관세율 인상보다는 수입규제, 국경세, 공정가치 등 비관세 장벽을 주로 활용하는 추세

비관세 장벽 강화

저성장과 비관세 장벽

- 최근 저성장 기조로 비관세 장벽 강화 추세
  - 비관세 조치는 불황기에 증가하고, 경기 회복기에는 줄어드는 경향



주: 반덤핑과 상계관세 건수의 합

비관세 조치 강화 및 확산

- 트럼프 정부는 비관세 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더욱 확대할 전망
  - 반덤핑, 상계관세 외에 반독점 및 담합 처벌 강화, 징벌적 벌금, 환율압박 등
- 중국, 인도, 중남미 등 신흥국도 안전 및 기술 장벽 적극 활용
  - 중국의 경우 통관 시 엄격한 품질 검사, 안전 기준 자의적 적용 등이 대표적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 등장

공정가치 (fair value) 무역 강조

- 신흥국의 환경, 노동, 반독점 규제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추도록 요구
- WTO 규약 위반 행위 엄격 적용
  - 산업용 전기, 수도 등의 요금 통제
  - 정부와 기업간 공동 R&D

조세제도 개편

- 2016년부터 이전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모든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BEPS*)
  - 기존 보고 사항 이외에 조직 구조, GVC, 이전가격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사 핵심 기능 노출 우려
- 수입중간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국경조정세 도입 검토

매출 기준 상위 5000대 기업의 숫자 및 실적 면에서 중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져

글로벌 5000대 기업 중 주요국 위상 변화

	기업 수(개)			매출 비중(%)		이익 비중(%)	
	2004년	2009년	2014년	2004년	2014년	2004년	2014년
중국	**308**	**466**	**720**	**2.6**	**11.8**	**3.9**	**11.0**
인도	94	142	136	0.8	1.9	1.2	2.0
한국	**196**	**190**	**182**	**3.6**	**4.0**	**3.6**	**2.3**
미국	1,183	1,183	1,262	32.1	31.7	34.8	39.6
일본	1,172	936	733	19.8	12.4	11.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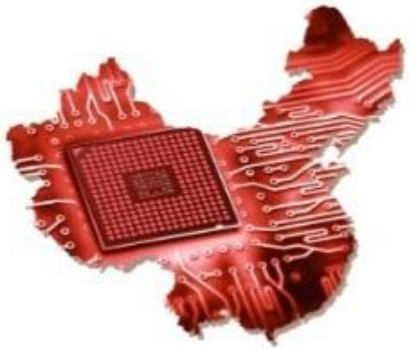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2015년 8월)

글로벌 리더십 확대 모색하면서, 첨단산업 육성 등 자국우선주의 정책 강화

대외 통상 전략

글로벌 리더십 모색

-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이용해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
  - 경제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
  - 중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협력체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설립 주도



미국에 맞대응 자제

-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안정이나 외교안보적 이익을 중시
  - 양안 관계, 남중국해 등의 사안에 대해 중국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 목표
  - 통상압력에는 WTO를 통해서 대응하고 수입선을 유럽 등으로 전환

자국우선주의 정책

첨단산업 육성

- '신흥산업 육성계획', '13.5 규획'(2016년 시작)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 해당 산업의 국영기업 지원 확대, 해외기업 인수합병 물밑 지원
  - 국산화 비중 제고, 외국기업 진입규제...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외국기업 차별 강화

- 정치적, 경제적 이해와 상충하면 손쉽게 외자기업 제재 결정
- 양국간 주력 업종이 유사해 중국 정부는 한국기업을 중요한 경쟁자로 간주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가 냉각된 것도 악재

Ⅰ. 사드 보복의 배경

Ⅱ. 한중 경제관계와 그 영향

Ⅲ. 향후 전망

한-중 양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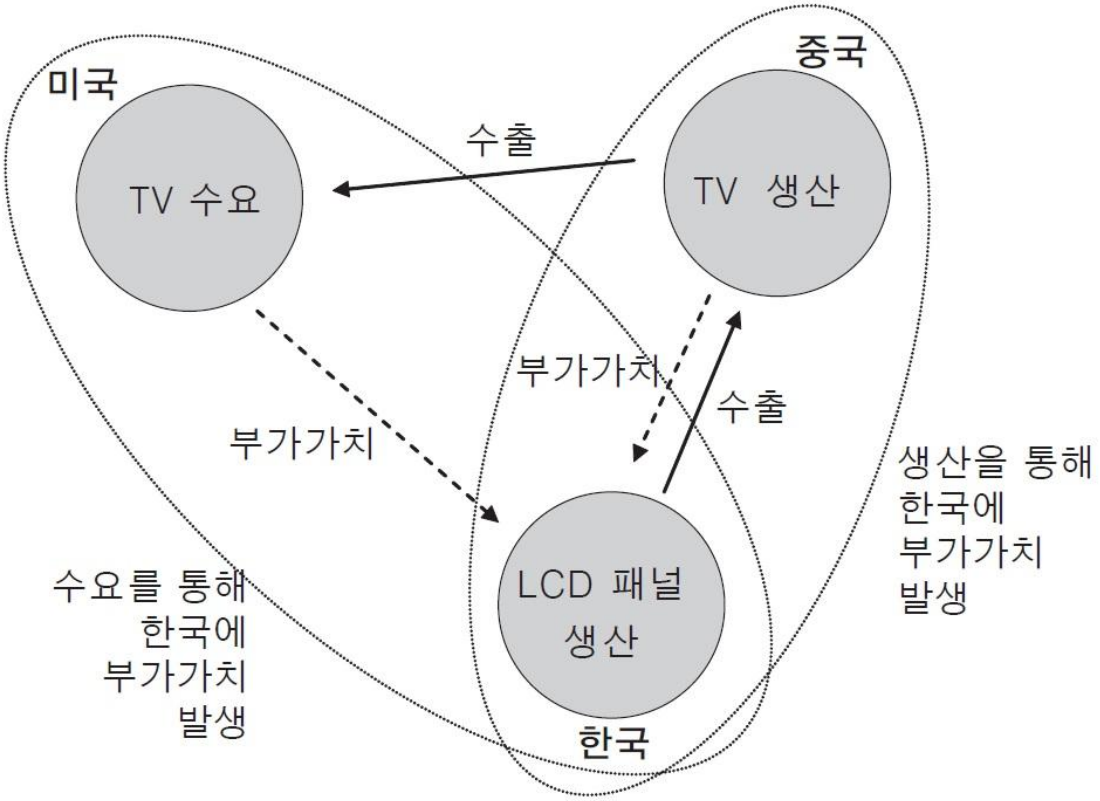
구 분	한 국		중 국		비 고
	2013~2015[1]	2016~2018	2013~2015	2016~2018	
GDPP(10억 달러)	1,329	1,425	10,366	11,591	중국, 한국의 8.1배
1인당 GDP(명목, 달러)	26,359	27,924	7,580	8,371	-
경제성장률(실질, %)	2.9	2.6	7.3	6.4	-
인 구(백만 명)	50.4	51.0	1,367	1,384	중국, 한국의 27.6배
국토면적(만km^2)	10		960		중국, 한국의 96배
재정수지(% of GDP)	0.5	0.0	-2.4	-3.9	-
정부부채(% of GDP)	35.8	39.4	15.0	20.3	중국 1위, 한국 7위
물가상승률(%)	1.1	1.5	2.0	2.2	중국 2위, 한국 9위
외채비중(% of GDP)	31.2	27.3	10.1	12.3	-
경상수지(% of GDP)	6.8	6.6	2.4	1.9	-
수출(백만 달러)[2]	553,007		2,278,140		중국 1위, 한국 6위
수입(백만 달러)[2]	492,533		1,838,057		중국 2위, 한국 10위
무역수지(백만 달러)[2]	60,474		440,083		중국 1위, 한국 4위

1) 3년 평균, 2) 한국무역협회 자료 (2016년 이후 자료 미 제공)

자료: Consensus Forecast East & South Asia, Focus Economics (2017년 4월) / 무역통계DB, 한국무역협회

세계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무역 기반의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국제분업 관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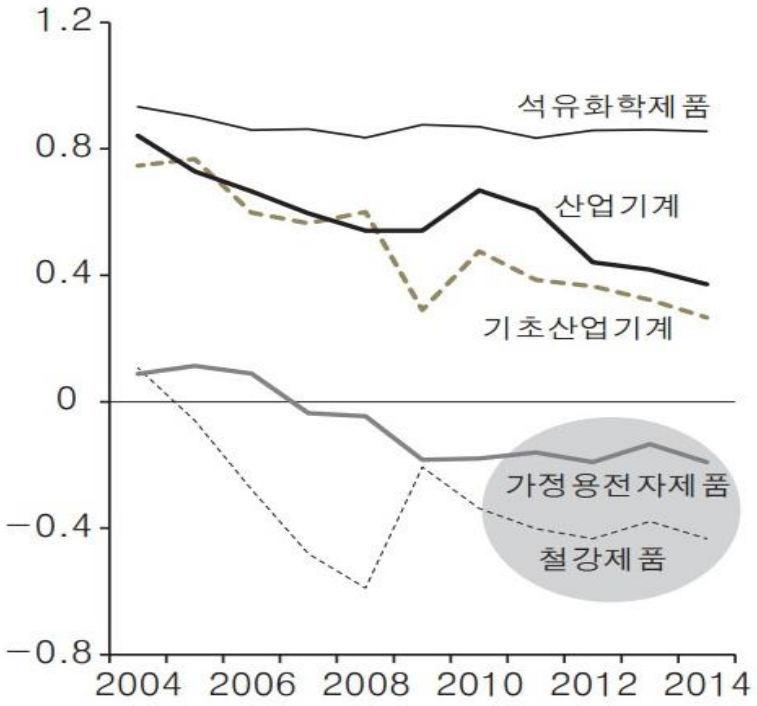
한국-중국-미국 간 무역에 따른 부가가치 흐름



양국의 경제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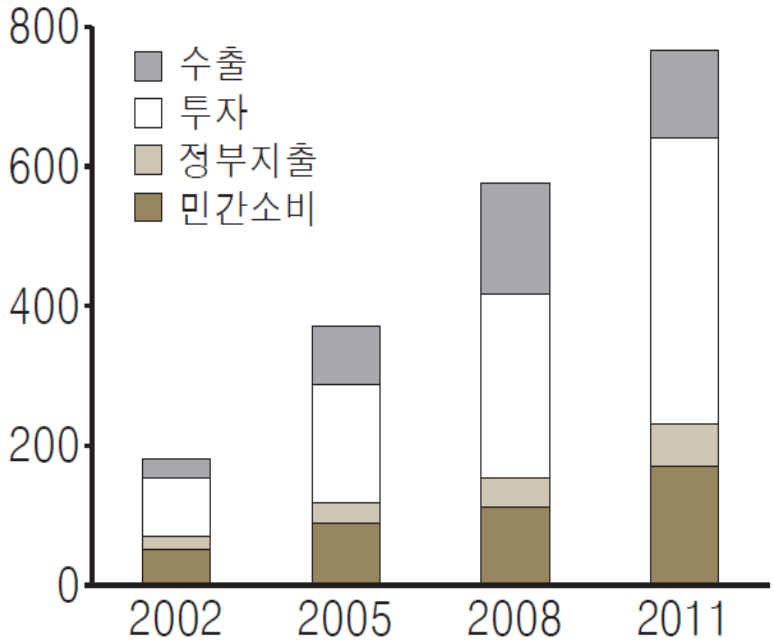
지난 25년 새 한중 교역 관계는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
한국은 중국의 소비보다 투자를 통해서 더 큰 부가가치 얻어

한국 주력 수출품의 대중 무역 특화지수 변화



* 무역특화지수=(수출-수입)/(수출+수입), MTI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LG Business Insight (2015년 3월 4일)에서 재인용

중국 지출 부문별 한국 부가가치 유발액



* WIOD DB. 전년 가격 기준.
자료: LG Business Insight(2015년 3월 4일),
LG경제연구원

중국에 대한 제조업 수출의 72%가 중간재일 정도로 양국 산업간 분업구조 긴밀

한국의 대중 산업별 수출 현황 (2015)

	총수출 (억 달러)	중간재 수출	
		금액(억 달러)	비중(%)
반도체	600	578	96.3
전기전자	306	210	68.6
석유화학	191	191	100.0
디스플레이	182	3	1.6
정밀화학	87	73	83.9
일반기계	78	31	39.7
자동차	53	3	5.7
철강	46	45	97.8
비철금속	34	33	97.1
생활용품	29	24	82.8
섬유의복	21	19	90.5
비금속광물	8	8	100.0
조선	6	0	0.0
기타제조업	91	34	37.4
제조업 전체	**1,733**	**1,252**	**72.2**

자료: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별 대응전략', 산업연구원(2017.3)

중간재의 경우, 수출 뿐 아니라 수입 비중 역시 전체 교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 수출입의 성질별 비중

	총수출		대중 수출		총수입		대중 수입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1차 산품	0.4%	0.4%	**0.5%**	**0.4%**	21.4%	19.4%	**1.7%**	**1.7%**
기타	0.1%	0.2%	**0.0%**	**0.0%**	0.1%	0.2%	**0.0%**	**0.0%**
소비재	12.8%	13.4%	**4.4%**	**5.6%**	13.1%	14.7%	**15.6%**	**16.9%**
자본재	24.1%	22.1%	**21.7%**	**20.0%**	13.9%	14.6%	**20.8%**	**20.2%**
중간재	62.6%	64.0%	**73.4%**	**73.9%**	51.5%	51.1%	**62.0%**	**61.2%**

자료: 무역통계 DB, 한국무역협회

<참고> 한국의 대중 수출입 상품 변화 비교

한-중 간 교역은 산업 내 무역과 국제분업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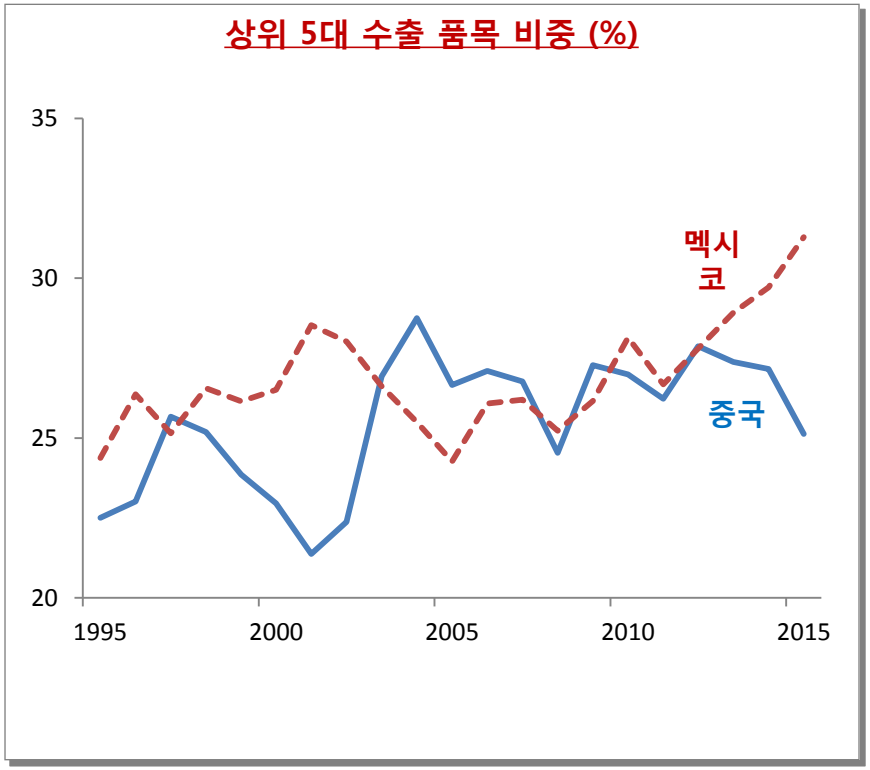
국가	순위	1995	2005	2015
수출	1	에틸렌 중합체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2	석유와 역청유	액정 디바이스	액정 디바이스
	3	환식 탄화수소	TV, 영상기기용 부분품	환식 탄화수소
	4	소 등의 가죽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화기
	5	합성스테이플 섬유	석유와 역청유	자동차 부품
	6	프로필렌 중합체	자동차 부품	전기식음향기기
	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컴퓨터 부품	석유와 역청유
	8	종이 및 판지	폴리카르복시산 및 기타	반도체 부품 및 부분품
	9	플라스틱 직물류	환식 탄화수소	전기회로용 부분품
	10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	스테인리스강 평판	다이오드 등
수입	1	석탄 및 연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집적회로
	2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	전화기
	3	철이나 비합금강 반제품	컴퓨터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4	석유와 역청유	석탄 및 연탄	액정 디바이스
	5	선철과 스피그라이즌	전자집적회로	전선 및 케이블
	6	면 합성스테이플 직물	알루미늄의 괴	다이오드 등
	7	석유와 역청유(원유)	전기식음향기기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
	8	합금철	변압기 및 정지형변환기	철강 구조물
	9	재생 및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	옥수수	컴퓨터 부품
	10	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TV, 영상기기용 부분품	인쇄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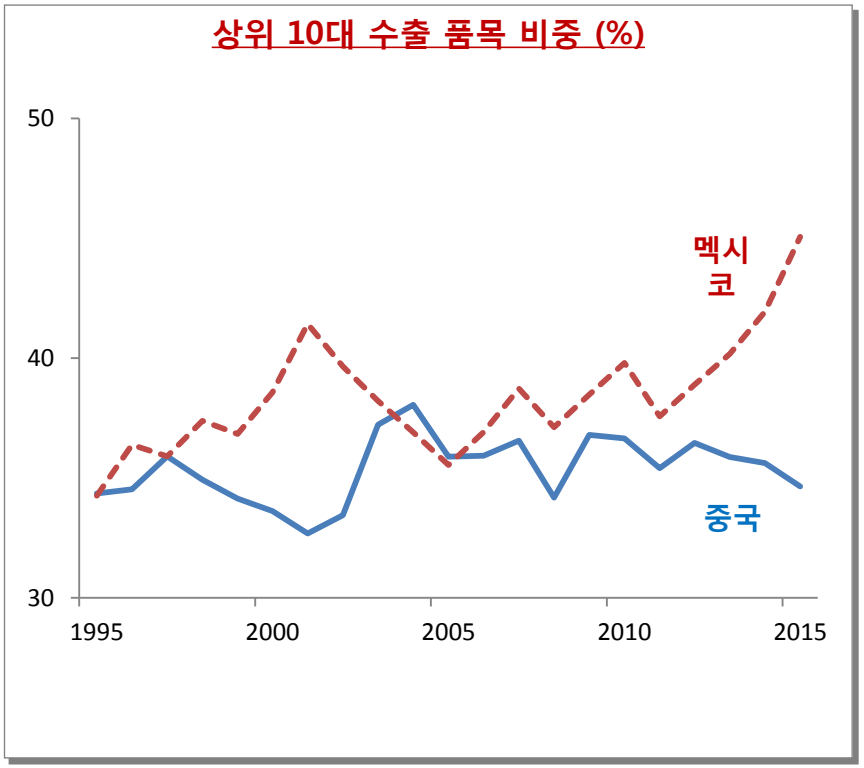
* HS 4 digit 기준이며, 파란색은 3회 모두 포함된 품목, 초록색은 2회, 밑줄은 교차 발생 /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DB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 패턴 달라져

멕시코와 달리 중국은 대미 수출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중국 및 멕시코의 대미 수출 집중도* (원유 제외)





* 각국의 총수출에서 상위 5~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HS 4 digit 기준)
자료: UN Comtrade DB

지난 20년 새 중국의 대미 수출 10대 품목 변화는 계속 변화... 멕시코와 대조적

국가	순위	1995	2005	2015
중국	1	신발류	**컴퓨터**	**컴퓨터**
	2	완구	방송·통신 장비	방송·통신 장비
	3	기타 특수 신발	사무용 기기 부품	전화기
	4	라디오	신발류	조명기구
	5	가방(트렁크, 핸드백 등)	가구	자동차 부품
	6	**컴퓨터**	VTR	TV, 영상기기
	7	플라스틱	TV, 영상기기	가구
	8	가죽 의류	음향기기	의자
	9	조명기구	완구	사무용기기 부품
	10	여성용 의류	의자	가방(트렁크, 핸드백 등)
멕시코	1	**원유**	**원유**	**자동차**
	2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부품**
	3	**전선, 케이블**	**TV, 영상기기**	**화물차**
	4	**TV, 영상기기**	**자동차 부품**	**컴퓨터**
	5	**자동차 부품**	**컴퓨터**	**TV, 영상기기**
	6	엔진	**전선, 케이블**	전화기
	7	**화물차**	**화물차**	**원유**
	8	**컴퓨터**	방송·통신 장비	**전선, 케이블**
	9	TV 및 라디오 부품	의자	트랙터
	10	라디오	전기 스위치, 커넥터	의료장비

*** HS 4 digit 기준이며, 파란색은 1995년, 2000년, 2015년에 모두 포함된 품목 / 자료: UN Comtrade DB**

한국의 우회 수출과 부가가치 기여도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 대미 수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분업 관계 위축에 따르는 기회비용 감소

멕시코 및 중국의 대미수출에 포함된 한국의 부가가치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연도	대미수출 내 한국의 부가가치액 (A)	해당국의 대미 최종재 수출액 (B)	해당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 (C)	한국 부가가치의 비중 (A/B)	해당국 수출 대비 부가가치 기여도 (A/C)
중국	2004	2,117	88,435	54,130	2.39	3.91
	2009	2,570	154,949	96,507	1.66	2.66
	2014	3,404	217,068	168,773	1.57	2.02
멕시코	2004	1,262	86,968	5,202	1.45	24.25
	2009	2,181	95,048	10,417	2.29	20.94
	2014	2,234	135,280	14,043	1.65	15.91

자료: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주력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 대미수출 대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낮은 수준

중국의 산업별 대미수출에 포함된 한국의 부가가치

(단위: 백만 달러, %)

산업	연도	대미수출 내 한국의 부가가치액(A)	중국의 대미 최종재 수출액 (B)	한국의 대중 수출액 (C)	한국 부가가치의 비중 (A/B)	중국 대미수출 대비 부가가치 기여도 (A/C)
컴퓨터, 전자	2004	1,330	33,851	20,254	3.93	6.57
	2014	2,296	72,921	75,309	3.15	3.05
전기 기기	2004	101	5,726	1,747	1.76	5.76
	2014	237	19,497	8,419	1.22	2.82
자동차	2004	8	462	2,112	1.79	0.39
	2014	40	4,241	5,591	0.95	0.72

자료: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주력 산업의 멕시코 대미수출 대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매우 높은 수준

멕시코의 산업별 대미수출에 포함된 한국의 부가가치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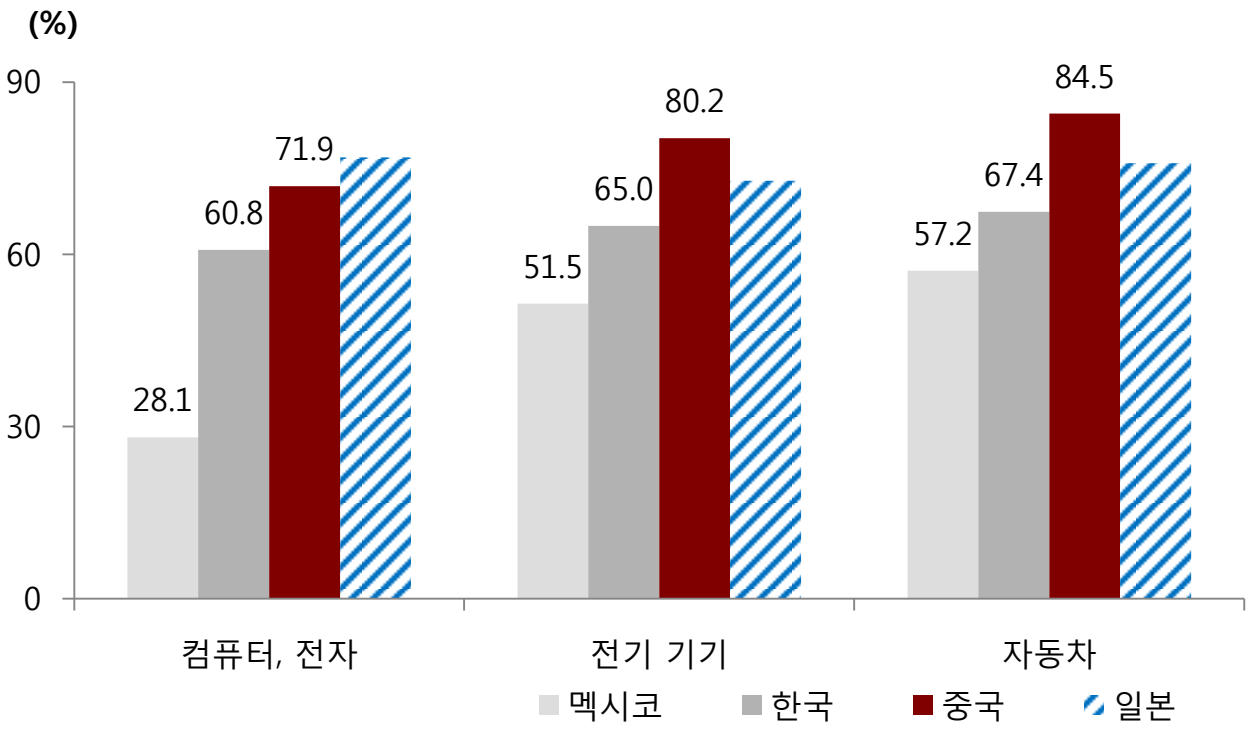
산업	연도	대미수출 내 한국의 부가가치액(A)	멕시코의 대미 최종재 수출액 (B)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액 (C)	한국 부가가치의 비중 (A/B)	멕시코 대미수출 대비 부가가치 기여도 (A/C)
컴퓨터, 전자	2004	908	30,701	2,793	2.96	32.53
	2014	1,251	30,865	4,786	4.05	26.14
전기 기기	2004	71	5,814	245	1.22	29.03
	2014	181	9,934	703	1.82	25.71
자동차	2004	144	20,251	245	0.71	58.48
	2014	463	34,652	1,232	1.34	37.6

자료: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대미 수출의 부가가치 측면에서 중국 위상 두드러져

한국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부가가치 비중은 중국이 오히려 높은 편

국가별 대미 부가가치 수출 비중 (2014년)



자료: 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

Ⅰ. 사드 보복의 배경

Ⅱ. 한중 경제관계와 그 영향

Ⅲ. 향후 전망

사드 발 7단계 경제 보복 시나리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 5단계에 진입 중

- 1단계: 외교적 문제 제기 ➔ 상징적 항의, 심리적 압박
- 2단계: 비자 발급 제한
- 3단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명백히 드러내기 시작
  - ▸ 중국 내 한류 컨텐츠 유통 제재
  - ▸ UN 대북 관련 공조에 비협조적

- 4단계: 대중 수출에 대한 비관세 제재 ➔ 소비자 등 중국 측에도 피해 발생
  - ▸ 화장품, 분유 등 중국 판매 규모가 큰 소비재에 위생검역 실시
- 5단계: 중국 주재 한국 기업 제재
  - ▸ 한국 기업의 세무,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엄격한 법 적용

- 6단계: 보복 범위 확대 ➔ 중국 측도 큰 피해 감수
  - ▸ 한국에 기 진출한 차이나 머니 회수
  - ▸ 서해 등 긴장 지역에서의 무력시위 빈발
- 7단계: 수출입 통제
  - ▸ 긴급수입 제한, 한중 FTA 폐기 등

* 최종건 교수(연세대학교)의 '사드 7단계 제재' 인터뷰 정리

중국은 경제발전 측면에서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 사드 보복의 장기화는 어려울 것

중국의 분위별 평균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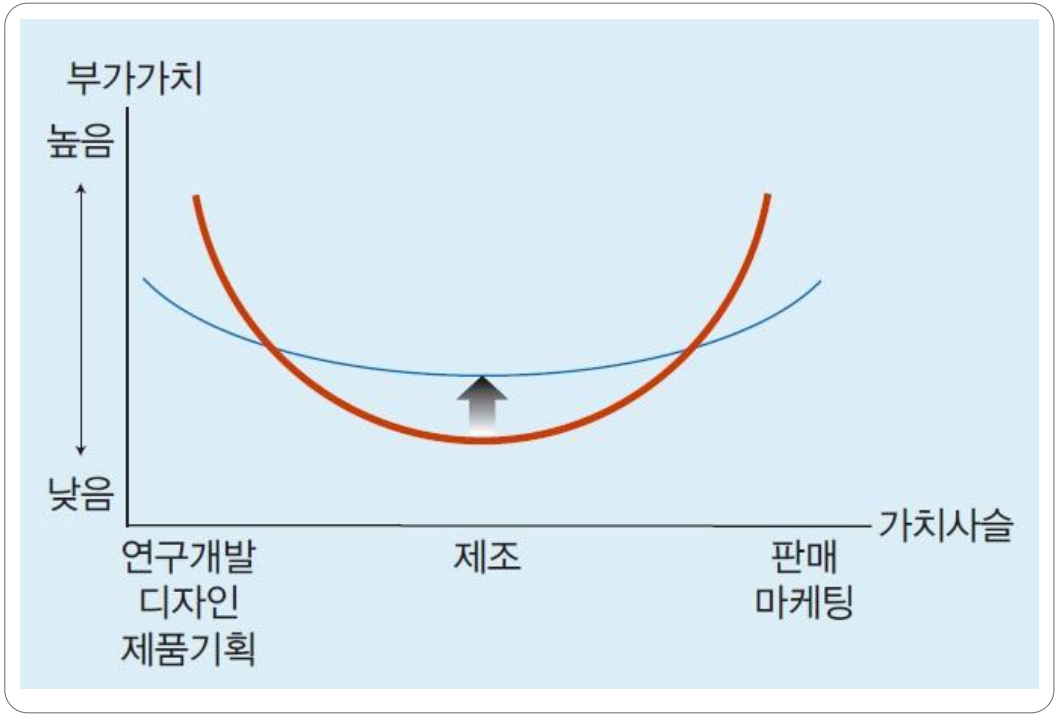
중국	2002	2008	증가율
1분위	1,148	1,760	53.3
2분위	2,098	3,430	63.5
3분위	3,281	5,990	82.6
4분위	5,653	11,093	96.2
5분위	12,924	25,075	94.0

- **BRICs 열풍과 함께 시장 개방 및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됐던 2002~08년 동안 중국의 소득 분배가 다소 악화됐으나 전체 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높아서 그 충격을 완화**
  - 1분위 대비 5분위 배수가 2002년 11.23에서 2008년 14.25로 악화
  - 그러나 모든 분위가 6년 새 53.3~96.2%의 높은 소득증가율 기록
- **이 기간 동안 차상위 소득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사례가 많아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인식**
  - 2008년 중간 소득 계층(2~4분위) 소득이 6년 전 상위 단계 소득 수준 추월… 상향 이동 희망 제공

* 단위: 위안(2002년 불변가격 기준), %
자료: 'The Challenge of High Inequality in China', Inequality in Focus, Sicular T., 2016

한중 간 교역 갈등은 양국 경제의 분업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국제분업 구조 후퇴와 스마일커브 변화



- **중국 저임 노동력 활용 등 국제분업에 기반한 제조업 생산 체제가 흔들림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불가피**
  -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맞물려 '스마일커브' 수평화 유발
    - ☞ 고급 인재 이탈에 따른 산업 및 기술 혁신 제약 우려
  - 제조원가, 노동력 등 공급 경쟁력보다 수요시장 접근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
    - ☞ 글로벌 생산분업의 가치 축소

한중 FTA 백지화가 이뤄질 경우, 그 동안 사드 보복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간재 부문에 관세 인상 충격이 집중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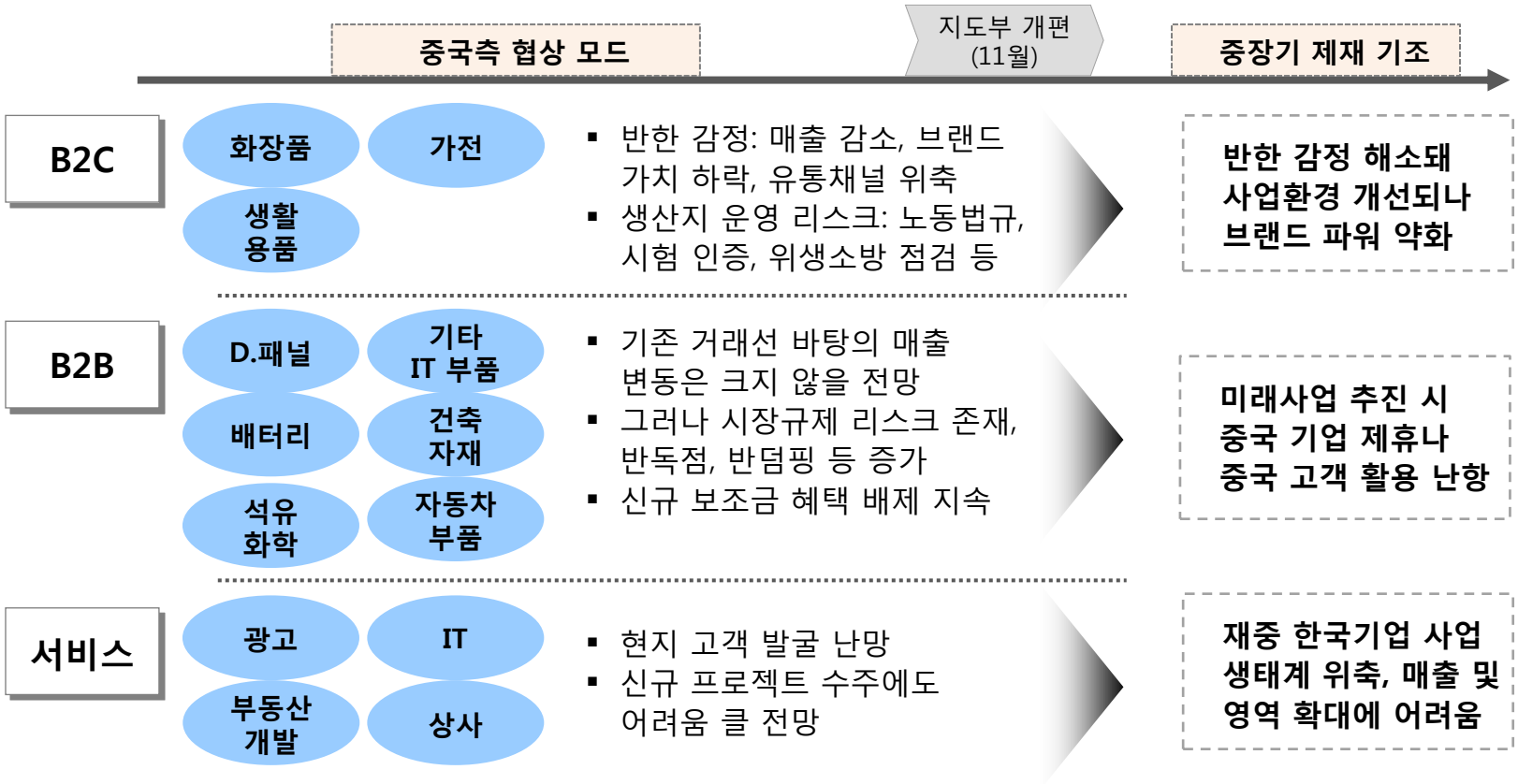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중국 관세율 및 한중 FTA 양허안

순위	품목	현행 중국 내 관세율	양허안
1	LCD 패널 등	5%	10년 내 철폐
2	메모리 반도체	0%	-
3	프로세서 반도체	0%	-
4	휴대전화 부품	0%	-
5	경유 등 석유 제품	6~9%	즉시 및 10년 내 철폐
6	파라크 실렌	2%	양허 제외
7	신호기기 부품	0%	-
8	자동차 부품	6~25%	10~20년 내 철폐
9	가전 제품	0~10%	10년 내 철폐
10	전자인쇄회로	0%	-

출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중 FTA 검토 자료 (2015년 3월 13일)

반한 감정 고조로 피해를 입은 B2C 사업 영역은 사드 가동 1년 뒤쯤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B2B 영역에서는 중국 시장 기회 살리기가 점차 어려워질 전망

중국의 보복기조 지속 시 한국 주요 업종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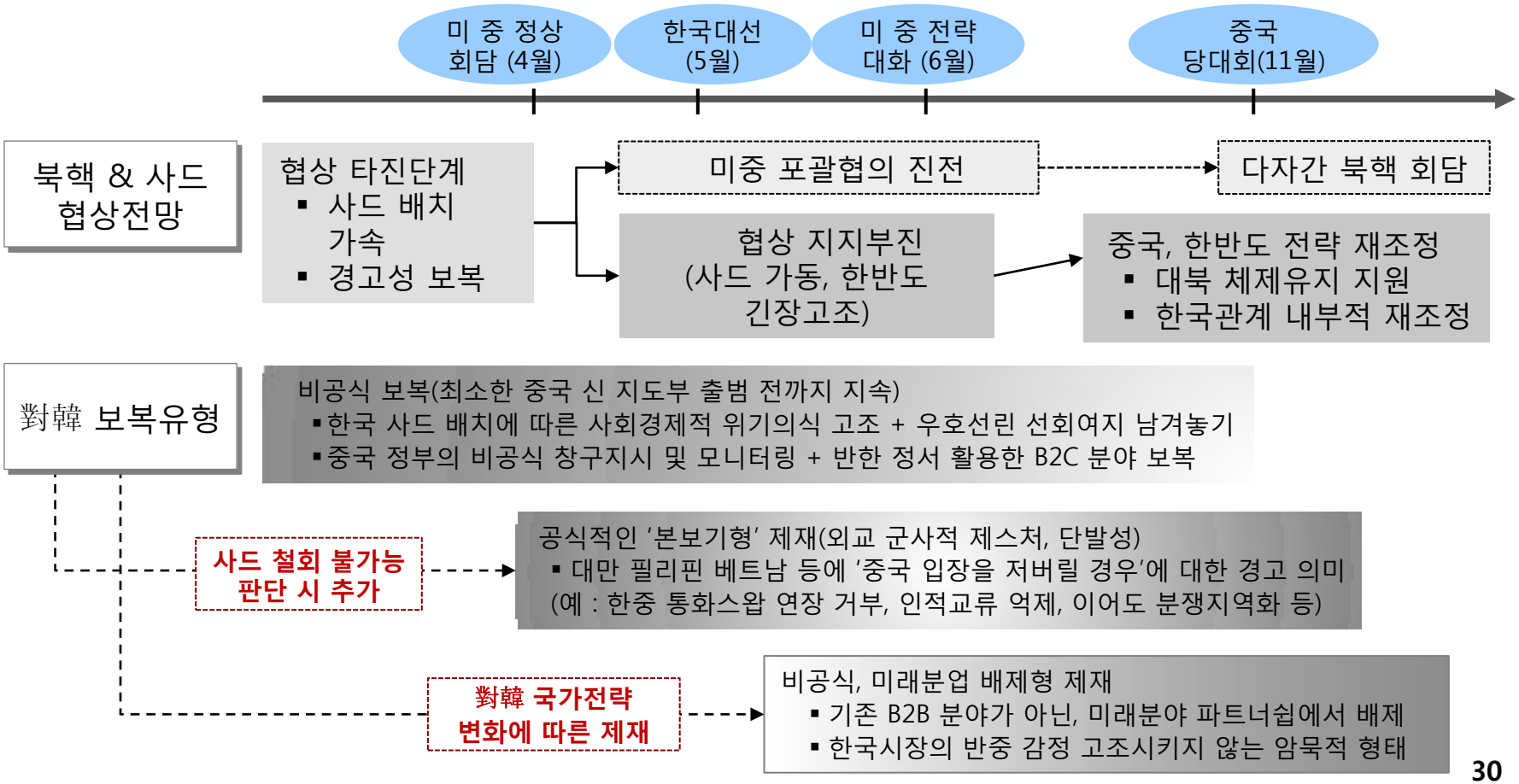


☞ 거시경제 차원에서 대중 상품 서비스 수출의 둔화로 한국 GDP는 1% p 이내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와 내수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사드 보복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사드 배치는 미국, 한국 등 당사국과의 협의에 따라 가변적… 그러나, 북핵 등과의 연동으로 쉽게 철회되기 어려운 만큼 보복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

사드 관련 주요 국제정치 일정과 보복 양상 변화(전망)



Thank You for Listening!!